

9월 1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중국에 울다 웃다`..다우 0.2%↑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음. 오전중 약세로 밀리자 반발매수세가 유입되었음. 특히 중국투자공사(CIC)가 美 발전회사인 AES에 출자를 검토중이라는 호재가 美中간에 불거진 무역마찰 악재를 크게 상쇄했고 기업체들의 인수합병(M&A) 움직임도 경기회복 시그널로 해석되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1.39포인트(0.22%) 상승한 9,626.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8포인트(0.52%) 오른 2,091.7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6.61포인트(0.63%) 상승한 1,049.34를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음. 가격부담속에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자칫 무역분쟁으로 불거져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이번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금융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점도 악재가 되었음. 그러나 주식시장이 장중 조정을 받자 반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고, 오후들어 주요지수들은 낙폭을 줄이고 강보합세로 전환했음. 특히 중국투자공사가 AES의 지분 인수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틸리티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음. 또 도이체텔레콤이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 넥스텔 인수를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호재가 되었음. 최근 미 식품업체 크래프트푸드의 캐드버리 인수 시도에 이어 기업들의 잇따른 M&A 움직임이 경기회복 시그널로 해석됐기 때문임. 오전중 美 달러화 반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금속관력 상품주도 오후들어 미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세로 전환하자 이를 호재로 인식하며 낙폭을 크게 줄이며 지수반등에 일조했음. 또 장초반 약세를 이끌었던 은행업종도 반발매수세가 유입된데 힘입어 장중 오름세로 돌아서며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었음.
루비니 교수 "은행 파산 늘고 집값 더 떨어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소비지출 중단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미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세계 경제가 현재 더블딥(경제가 W자 형태로 회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하강하는 현상) 위험에 직면해있으며, 기껏해야 저성장의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하락..美·中 무역마찰 영향	국제유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68달러선으로 후퇴했음. 14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43센트(0.7%) 하락한 68.86달러로 마감했음.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자칫 무역분쟁으로 확산돼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방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작용했음. 유가는 지난주말 장중 72.9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중국의 8월 원유수입이 전월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7%나 급락하며 69.29달러까지 밀렸음.
日 NEC+ 카시오+ 히타치 "휴대폰 사업 합쳐"	일본의 NEC와 카시오컴퓨터, 히타치 등이 국내 시장 위축에 따른 타개책으로 휴대폰 사업을 합병키로 했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합병을 통해 전문기술을 통합해 해외 판매를 강화한다는 계획. 합병 계획에 따르면 NEC가 먼저 연말까지 자체 계열사를 세워 내년 4월쯤 NEC 휴대폰 사업부문을 합병키로 했다. 이후 이미 2004년부터 합작사로 운영되고 있는 카시오 히타치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을 흡수합병하게 됨. 이를 통해 설립될 NEC 카시오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은 내년 6월말까지 자본금을 50억엔 규모로 늘린 뒤 NEC가 70.74%의 지분을 갖고 카시오와 히타치가 각각 20%와 9.26%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음.
유럽, 성장세 아직은 미약	EC는 27개 회원국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에 내놔던 마이너스(-)4%로 유지했다. 유로를 사용하는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4%를 유지했다. 다만 3분기 EU와 유로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내놓은 전망과 유사. ECB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은 -4.4%~-3.8%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이 되어야 소폭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C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음. 다만 올해 하반기 성장세를 감안할 때 5월 전망치보다는 0.5%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음.
전직 경제수장들 "금리 올려야..."..한 목소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금리수준이 너무 낮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기회복시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음. 우리 경제가 정상상태라면 기준금리가 4~5%대가 돼야 하는데 2%인 현 수준은 유례없는 확장기조라는 것. 지금 금리를 25bp 정도 올린다 해도 확장기조 유지되는 것인만큼 경기 상승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진단. 그는 또 "미국에서도 출구 전략을 시작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연내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통화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